



홈페이지



Twitter

미야기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전승관에 관하여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지역 사회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일한 슬픔과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기억과 교훈을 후세에 전달해 나갈 것, 피해 지역의 재생과 부흥을 위해 사람들과 지역이 힘을 합쳐 계속 전진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미야기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전승관은 이 의무를 서로 확인하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다지기 위한 장소로써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에 닥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전국, 세계 그리고 다음 세대와 소통하며, 정보 전달과 교류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건물 콘셉트

전승관 건물은 실내의 지름이 40m 인 원형 건물로, 지붕은 숲속의 나무들처럼 불규칙하게 세워진 가는 기둥으로 떠 받쳐져 있는데, 건물 주변에 심겨진 소나무들이 성장했을 때 서로 연결된 공간이 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외벽은 모든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벽으로 되어 있으며, 실내에서는 히요리야마산, 젠카이다이나리 신사, 이시노마키시 지진재해 유구 가도노와키 초등학교, 추도 광장, 일본제지 공장의 몇몇 굴뚝에서 뿜어나오는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서 가장 높은 북쪽 지붕의 높이는 6.9m 로, 이 지역에 쓰나미가 덮쳤을 때 어느 정도 높이까지 물이 차 있었는지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시 준비의 개요

전시 목적은 동일본 대지진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슬픔과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진재해에 대한 기억과 교훈을 후세에 전달해 나가는 것에 더해, 미야기현 내의 지진재해 전승 시설 등으로 안내하는 출입구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미래로 기억을 전달하는 장소' 라는 콘셉트 하에 피해 상황과 교훈 등을 패널과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감나는 쓰나미 영상과 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쓰나미로부터 생명을 지키려면 '도망치는 방법 밖에는 없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영상을 비롯해, 미야기현 내의 지진재해 전승 시설과 구전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 지진재해를 계기로 탄생한 지역의 부흥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상 출연자 : 79단체 90명)

교통편

[소재지]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미나미하마초 2초메 1-56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경우

센다이에서 : 산리쿠 중관 자동차도를 경유하여 약 70분
가까운 인터체인지 : '이시노마키코 IC', '이시노마키 가난 IC' 각 IC에서 약15분
주차장(무료) : 가도노와키 주차장
보통자동차 229대, 대형차 9대, 장애인 등 우선 주차 5대
※대형차는 가도노와키 출입구를 통해서만 진입 가능

○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이시노마키 역 앞 버스 타는 곳 2에서 야마시타 가도노와키선에 승차하여 '가도노와키 4초메' 에서 하차
소요 시간 : 약 12분

○택시를 이용하시는 경우

이시노마키 역 앞에서 약 10분

○자전거(대여)를 이용하시는 경우

이시노마키 역 앞에서 약 15분

※소요 시간은 대략적인 시간입니다.

이용 시에는 최신 시간표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용 안내

[개관시간] 9 : 00 ~ 17 : 00(입장 마감 16 : 30)

[휴관일] 매주 월요일(국경일인 경우에는 다음 평일)

연말연시(12/29 ~ 1/4)

※매월 11일은 요일·국경일에 관계없이 개관

[입장료] 무료

[TEL] 전시 견학에 관한 문의·단체 예약에 관한 문의 0225-98-8081

공원 이용에 관한 문의 0225-98-7401

[FAX] 0225-98-8082

[홈페이지] <https://www.pref.miyagi.jp/soshiki/densho/miyagi-denshokan.html>

★ 콘셉트 패널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에 휩쓸렸지만 생명을 건진, 당시 이시노마키시 미나미하마 지구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당시에 입고 있던 의류 및 당시 촬영한 사진을 패널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① 이어지는 기억

재해 전 모습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여 기억을 되살리는 극장입니다. 잃어버린 마을을 그리워하며 피해의 크기를 마음에 새깁니다.



②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 알아보기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쓰나미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관련된 전체 상황에 대해 알려줍니다.



③ 극장 '되풀이되지 않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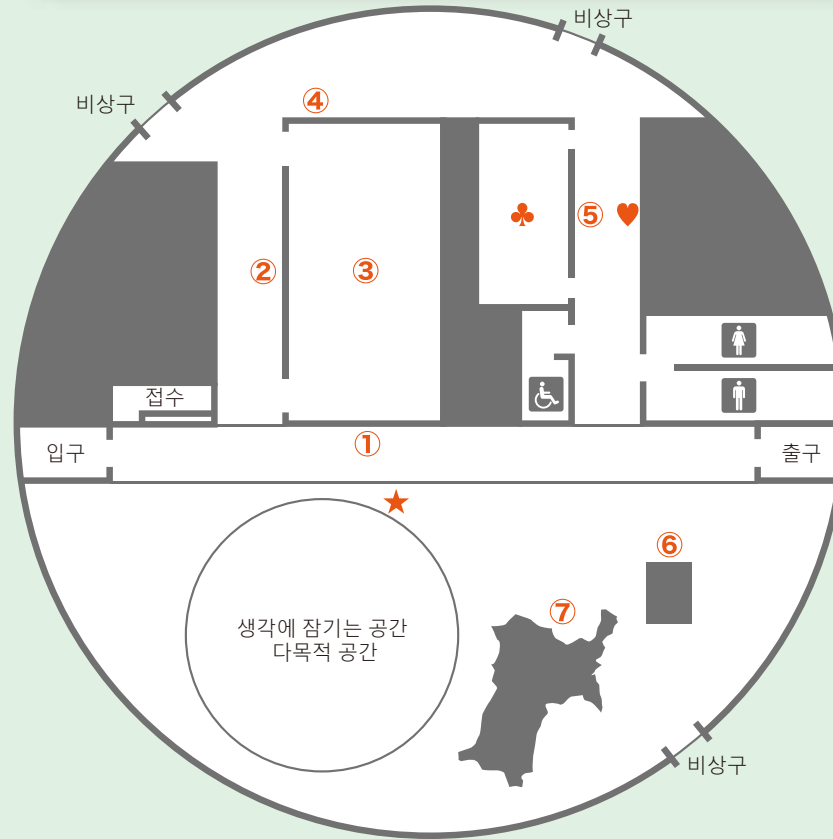
다큐멘터리 방식의 연출을 통해 쓰나미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망" 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영상 내용 중에는 쓰나미 등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쓰나미로부터 생명을 지킨다

"쓰나미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식을 강화하고, 장래에 닥칠 위기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행동에 관해 히요리야마산이 바라다보이는 공간에서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⑤ 함께 이룩하는 부흥

동일본 대지진 후에 만들어진, 마을을 활기차게 만들고 지역을 부흥시키는 활동이나 시설, 단체를 소개합니다.



⑥ '가타리베' 들이 보내는 메시지

미야기현 내 여러지역에서 활동하는 가타리베 단체의 활동 모습을 소개하고, 지진재해 유구와 전승 시설 등, 현지를 방문하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⑦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

재해를 경험한 분들의 지진재해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증언 영상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지진재해에 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 동일본 대지진·긴급 대처에 관한 기록

재해 발생 이후의 긴급 대처에 관한 기록과 피해물을 통해서 쓰나미의 위험을 전달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 재해에 대한 대비에 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제작 : 국토교통성 도호쿠 지방 정비국】



♥ 3.11 전승 로드

동일본 대지진의 실정과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지진재해 전승 시설' 을 소개합니다.

【제작 : 국토교통성 도호쿠 지방 정비국】



견학 시간의 기준

60분에서 90분 정도(패널 전시만 견학하는 경우에는 30분 정도로 견학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터치 모니터 이외의 전시물에는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전시물 촬영(사진·동영상)은 '극장 되풀이되지 않도록'에 한정하여 일체의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전시물은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이 모두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용은 제외) 또한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SNS 등에 투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시설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삼가 주십시오. 단, 일부 지역에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기타

시설내에는 '해설원(명찰 착용)' 이 있습니다. 전시 내용의 해설이나 기기 사용방법 등에 관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